

해남, 내년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속도’



해남 어란진항

신규 사업비 229억 확보...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명현관 군수 “어업인 소득향상·정주 인프라 개선”

해남군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년 국·도비 예산에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군은 국·도비 22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두 사업을 통해 어항환경 개선과 어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 해양수산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어란진항에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 조

성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쉼터 신축, 공동실내작업장·스마트 광장·스마트 쉼터·해양쓰레기 저감시설 등을 조성한다. 대표 특산물인 물김과 전복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남을 대표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

트 어항,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있는 거점어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송지 학가·우근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70억원(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2026년부터 4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학가항은 어업인 안전 쉼터 조성과 어항 내 진입도로 확장, 어업활동 지원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경관 조성, 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어항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우근항은 선착장 연장,

물양장 확장 등 어항시설 정비와 함께 물김 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어란진항 신항 개발사업도 내년 42억원의 국비가 반영돼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업은 5년간 456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호안시설 축조, 부족한 배후부지 확보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어란진항이 포함된 송지면 어란지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총 60억원 사업비를 투입, 정주환경 정비와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내년 신규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사업들이 어업인 소득향상은 물론 정주인프라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군은 최근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다.

대불주거단지~삼호읍 통근·통학 더 편해진다

영암군, 생활권 연결축 도시계획도로 개통

영암군은 최근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다.

이 도로는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소재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영암군의 핵심 연결축으로, 통근·통학 등 생활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됐다.

도로가 개통되기 전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약 1km를 우회해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열악한 보행환경에 따른 안전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개통된 도로는 연장 630m, 폭 20m의 왕복 4차선으로, 생활권 연결축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삼호중·고등학교 통학 동선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학생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해 통학환경을 보강했다.

도로와 함께 신설된 교차로 2개소에는 원할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교통신호등 19주를,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25개를 설치했다.

아울러 향후 주변 주거·생활 인프라 확

장에 대비해 전 구간에는 우수·오수·상수관로 등 기반 관로도 매설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영암군은 2022년 11월 용지 보상, 12월 착공 후 총공사비 42억원을 투입해 최근 도로개설공사를 마쳤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중심생활권 간 이동이 개선돼 주민들의 생활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성을 강화하는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진도 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주)우리종합기술, 장학금 기탁 등 기부액 1억 돌파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군민과 지역 단체로부터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에는 (주)우리종합기술 1000만원, 대명산업개발㈜ 500만원, (재)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500만원, 장백건설 300만원, 농업회사법인(유) 이유팜 300만원, 진도군 갑각류생산자협회 200만원, (주)가희건설안전 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3개) 200만원, 진도중앙교회 100만원, 진도군 교회연합회 100만원, 조도면 이장단 100만원, 진도읍 조정현 50만원의 기탁이 이어졌다.

(주)우리종합기술은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금 1380만원 기탁에 이어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 연합모금 사업 ‘모아드림’에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올해로 10번째 기부를 실천하며 누적 금액 1억원을 달성하며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제3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진도 출신인 윤지현 우리종합기술 고문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자 보람이다”며 “앞으로도 진도군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학회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후원해 주신 우리종합기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진도군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설립된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 266억원을 조성하고, 장학금 지급과 교육비 지원, 명문고 육성 등 총 149억원 규모의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무안서 겨울송어 맛 즐겨요”

내달 24~25일 ‘겨울송어축제’

무안군은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송어를 소재로 내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에서 ‘2026 무안겨울송어축제’를 개최한다.

3회차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송어 튀고! 희망 낚고!’를 주제로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알릴 뿐 아니라 곱창돌김, 감태, 황토고구마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홍보하고 황토갯벌랜드, 갯벌탐방다리, 도리포 일출·일몰, 철산대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기간 송어를 비롯한 지역 농수산물(고구마, 김, 굴, 새우 등)을 활용한 구이존과 ‘황금송어를 잡아라’, 원데이클래스 ‘송어 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안송어는 무안의 정경 갯벌을 먹은 까닭에 ‘빨간 먹어도 달디 달다’고 할 정도로 맛이 일품이며, 하얀 속살에 붉은색을 띤 송어회는 매년 1월에 가장 쫄쫄득득하고 찰지면서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하영미 무안군 관광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즐기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한자게 새해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천년고찰 가치 재조명...전통산사 분야 최상위 성과

나주시가 천년고찰 불회사의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 전통산사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불회사의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전국 7개 시·군 자치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통산사 부문에서 불회사를 포함한 전국 단 3곳만이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자락에 위치한 불회사는 서기 366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대웅전과 건칠비로자나불좌상, 석장승 등 다수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봄에는 불회사, 가을에는 내장사’로 불리는 ‘춘불회추내장’의 명성처럼 사계절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또 국가 보호림으로 지정된 비자나무숲과 동백나무숲을 비롯해 초의선사가 즐겨마신 차나무 군락지가 현재까지 집단으로 자생하는 등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회사의 2년 연속 국가유산청장상 수상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온 시민과 사찰 관계자들의 노력, 이를 뒷받침한 행정의 성과가 함께 이뤄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나주시는 국가유산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 불회사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 전통산사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목포,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성과’

53종 프로그램 운영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아동·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드림스타트는 올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체계를 강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실제 시는 건강, 인지, 정서, 가족, 기능 회복을 아우르는 5개 분야 53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연인원 2707명을

지원했다.

필수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과 발달 선별검사 등 9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인원 606명이 참여했다. 신체·건강 분야에서는 치료·치료 및 예방접종 연계 등 6종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281명을 지원하며 아동의 신체 발달과 질병 예방을 도모했다. 인지·언어 분야에서는 기초학습 지원과 언어발달 촉진 등 12종 프로그램에 연인원 569명이 참여해 학습 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했다.

정서·행동 분야에서는 심리검사와 놀이·미술치료 등 15종 프로그램을 운영, 연인원 818명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화순, 공공배달앱 ‘먹깨비’ 크리스마스 이벤트

화순군은 공공 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크리스마스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로 먹깨비 앱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1인 3회 제공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타 할인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12월 말까지 1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화순사랑상품

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욱 풍성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군민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 할인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